

■스티븐스 주한 美 대사 단독 인터뷰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국내 경기불황,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 한·미 FTA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향후 대북관, 한·미 간 협력 관계 설정 등 현안은 당시자인 한국은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광주일보의 한미FTA 등 주요 한·미 현안과 관련,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와 19일 광주시 서구 한 호텔에서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차분하고 진솔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오른쪽) 주한 미국대사가 19일 광주시 서구 한 호텔에서 본사 박진현 문화생활부장(왼쪽)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있다.

■스티븐스는 누구

지난 9월 23일 부임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한국명 심은경) 주한 미국 대사는 여러 면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 수립 이후 한국에 부임한 21명의 미국대사 가운데 첫 여성이며, 한국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첫 대사다. 스티븐스 대사에게는 서울이 대사로서는 첫 번째 근무지이기도 하다. 스티븐스 대사의 '한국행'은 순탄치 않았다.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 1월 주한 미 대사 지명을 받고 4월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쳤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부시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 인준 표결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스티븐스 대사가 4개월간이나 인준을 받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할 때 그에게 우호적인 한국의 여론이 상원의 절차를 통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도 있다.

“광주 5·18 정신이 한국 민주 발전 이끌어”

대담=박진현 문화생활부장

-한국에 부임한지 한달 반 정도 됐는데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다. 부임하기 전부터 TV나 신문을 통해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이 소개됐다. 광주와 특별한 인연은 없는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언론에 자주 얼굴이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웃음). 지난 1975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충남 예산에서 생활했지만 실은 광주·전남과도 인연이 깊다.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할 당시 전남의 이곳 저곳을 다녔다. 지난 1976년 여름 방학기간에 중학교 교원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광주에 2주간 머문 적이 있다. 이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광주는 예술의 도시고 음식 맛도 뛰어나다고 추천해주던 기억이 생생하다.

19일 옛 도청 일대를 둘러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전의 고풍스런 도심의 모습을 간직한 집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조금 아쉬웠다.



오늘 아침 광주일보 인터뷰에 앞서 CNN 방송을 통해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빅3'가 미 상원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자동차회사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것을 봤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경제의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한미 FTA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정부와 여당은 한·미FTA를 먼저 비준하고 추후에 미국의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한국 정부, 의회, 한국민들이 국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이 언제 한미FTA를 비준하느냐는 중요한 단계다. 이는 워싱턴의 의원들에게도 의미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

-현재 광주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은 광주 아메리칸 코너가 유일하다.

▲미국 정부가 90년대 들어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전세계에 있던 문화원과 역사관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봉사단원 시절 '맛·예술의 도시' 광주와 인연

비자 면제, 美-광주 가까워지는 계기 됐으면

한다. 장기적으로는 역사관과 문화원을 재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광주 아메리칸 코너를 통해 광주사람들과의 교류를 넓히는 방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17일부터 무비자로 미국여행이 가능해져 과거에 비해 한결 일반인들의 미국방문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비자면제 시행으로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까워지고 양국 국민들간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만난 광주과기원과 전남대 관계자들로부터 알게 된 내용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한미 교류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미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풀브라이트 과학'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웨스트(WEST·Working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이 있는데 NGO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일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는 일석 4조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비자면제가 미국과 광주가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광주예술을 대표하는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를 둘러볼 소감은

▲광주에 내리는 첫눈을 보게 돼 기쁘다. 머문 지 24시간 밖에 안됐는데, 그 사이 푸른하늘을 보고 눈을 보게 됐다. 예술의 거리에서 한국의 전통을 현대기법에 접목하는 것을 보게 돼 즐거웠다. (한국말로)조만간 다시 광주에 내려와 광주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

/정리=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33년전 충남서 영어교사 '지한파'

한국인 前 남편 사이에 아들 있어

한국의 여론이 스티븐스 대사에게 우호적인 것은 우선 '지한파'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1975년 미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충남 예산중학교의 영어교사를 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한국에 머물던 1977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외교관 시험에 합격해 1978년 직업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1984년부터 5년간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팀장과 부산 주재 미국영사관 수석영사로 일하며 한국과 두 번째 인연을 맺었다.

이때 그는 경제팀장으로 일하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가까워졌다. 그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힐 차관보 밑에서 수석부차관보 및 특보로 일했고 그를 대사로 천거한 사람도 힐 차관보다. 한국 근무시절에 만난 한국인 전남편과의 사이에 현재 대학에 다니는 외아들이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주미대사로는 처음으로 한글로 적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 한미동맹·북핵 6자회담 지지

한미 FTA, 연내 비준 안 되면 재협상 가능성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5·18 국립 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5·18 묘역을 둘러본 소감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1984~1989)하던 중 지난 1989년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엔 대통령 직선제와 올림픽 성공개최로 한국사회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발전했는데, 오늘 묘역을 둘러보면서 80년 광주의 민주화 운동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대선기간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용의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표명했다. 이같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듯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차단 행동화 조치 등 노골적으로 남한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분명하게 한·미간 파트너십과 동맹의지를 강조해왔다. 미국은 향후 한국과 함께 북핵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도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에서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핵문제 등 대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근간은 한국과의 협력이다. 오바마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기본 입장 역시 현재 한국정부의 6자 회담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과 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이다. 여기에는

비핵화 진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정부의 절제되고 신중한 대북 접근자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미국은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구체화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한미FTA 대해 문제가 많은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꺼안으려는 오바마 당선자의 보호주의로 인해 결국 한미 FTA는 재협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사실 부시 행정부에서 한·미FTA가 비준 단계 까지 가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현재 미국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만약 FTA가 양국 의회에서 올해 비준되지 않으면, 재협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오바마 새 행정부는 자유·공정무역, 환경보호, 노동보호 등의 맥락에서 FTA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FTA는 대단히 포괄적인 협상으로 미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60 / 010-722-0100

1025530-9999